

민통련 20주년을 기념하며...



전 전북 민주화운동협의회 부의장 박순희

1947년생, 원풍모방노동조합 부지부장, 이리노동자의집 대표,
전북 민주화운동협의회 부의장, 현 전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70년대 민주노동운동동지회 부회장

민주통일민중연합 창립 20주년 기념 자료집 발간을 맞이하여

이 땅의 정의와 평화, 민주화를 위해 제물이 되신 수많은 동지들의 삶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의 축과 뿌리가 된 것도

암흑했던 70~80년대에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만났던
수많은 동지들의 힘입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민통련 20주년, 이 공간을 통하여 소식을 드리고 강건하심을 기원해 봅니다.

나는 67년, 현장노동자로 시작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중요성을 깨우친 이후, 우리
가 사는 사회가 맘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변화, 발전한다는 역사적 인식을 하면서 기
쁨으로 일하는 노동현장과 인간애를 다져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다. 노동운동이 불모시대
인 때, 외치는 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소중하기에 원풍모방에 입사하여, 박정희 군부독재
유신치하에서 온갖 못난이 꼬리표에 용공, 좌경, 빨갱이 등 불순세력이라는 누명을 썼고, 80
년에 전두환 살인정권에 의하여 그럴듯한 사회정화라는 이름으로 해고되다. 그 후 오랫동안

수배를 받으며 조합원들이 당하는 고통을 함께 느꼈고, 82년에는 민주노동조합의 뿌리를 뽑아내는 원풍모방노조 강탈사건의 마지막 싸움에서 '노동조합법 제3자 개입금지'라는 죄명으로 구속되었다. 수감생활을 마치고 83년 8월에 석방되어 그 해 10월에 천주교 진주교구에서 시작하는 천주교 노동사목에 실무자로 이리공업단지가 자리하고 있는 전북 땅 창인동성당의 작은 공간에 자리를 풀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때의 나의 몸과 마음은 좌절과 분노, 찢어진 상처가 다스려지지 않는 상태였는데, 갈등에 골이 깊어진 운동권 내부의 혼란한 상황은 더욱 힘들게 하였다.

구속된 후 1년의 세월을 지내고 나오니 너무 혼란스러웠다. 이 사회에 민주화니 노동해방이니 이론은 좋으나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당한 금력과 권력에 짓밟혀 거리를 방황하며 찍힌자명단(블랙리스트)에 의하여 노동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운동권의 잣대로 비난하고 짓밟아, 노동자 출신들은 주눅이 들어 숨죽여 살아야 하는 또 다른 골레가 씌워져 절망하는 상태에 내몰렸다.

서울은 실천하는 자보다 온갖 종류의 이론투쟁에 젖어 있어 그 틈에 나 자신이 묻혀 산다는 것에 또 다른 좌절감을 느꼈다. 실천이 있는 현장 노동자들과 살겠다는 일념으로 36년 동안 잔뼈가 굵은 고향땅을 떠나 전북에서 짐을 풀니 생각한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리 태창 메리아쓰에서 J.O.C 회원들이 해고되어 투쟁이 전개되었고, 공단 내 공장마다 J.O.C 회원 색출령이 내려졌다. 이리경찰서와 회사에는 서울에서 왕빨갱이가 창인동성당에 와 있다고 아침 조회 시간 때 알리고 창인동성당에 다니는 신자 노동자들까지도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노동자인 당사자가 노동자도 만날 수 없고 찍힌자명단(블랙리스트)에 의하여 노동현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자본주의하에서는 사형선고와 같은 것임을 몸으로 느끼며 질식할 것만 같은 때에 다시금 일어 설 수 있는 힘이 된 것은 전북 지역의 부문 운동과의 만남이었다. 문화, 학생, 여성, 농민들이 각자 만나는 작은 모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연대의 틀을 다져나갔다. 지향하는 뜻과 목표가 같았기에 길도 잘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 타지에서 쉽게 결속할 수 있었고, 터져 나오는 여러 사건을 해결하면서 동지애가 더욱 강해져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전북에서의 새로운 운동의 용트림이 결실을 맺어 84년 8월, 전북 민주화운동협의회가 창립되었고 나는 부의장을 맡았다. 지역운동이 하나로 모아지고 각계각층이 협력하는 투쟁으로 이어졌다. 이리 태창메리아쓰사건, 후레이패션노동조합 민주화투쟁, 군산 세풍합판, 전

주 백양메리야쓰 등 노동자들의 투쟁과 가톨릭농민회의 소몰이싸움을 비롯한 농민들의 투쟁이 대중투쟁으로 이어졌다. 노동자 블랙리스트철폐싸움도 전북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전개었다. 특히, 농민들의 어머니 싸움과 현장노동자들의 지식 투쟁이 결합되어 서로를 지원하였는데, 노동자들이 모내기를 돕고 농민들이 노동자 농성투쟁 때 쌀가마를 보내 주는 연대투쟁은 잊을 수가 없으며 그 깊은 사랑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

이렇게 구체적인 동지애와 연대의 틀을 다져가며 독재타도와 민주화운동, 민족통일을 이어나는 민통련의 의지에 따라 지역의 운동을 힘있게 모아냈다. 특히, 전북 지역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서울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투쟁 이어받아 동시에 싸움을 전개하였다. '최루탄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성고문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현수막과 깃발이 거리에 펄럭였고, 전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과 수녀님들과 함께 밤이 되도록 횃불을 밝혀가며 거리투쟁을 전개하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수배자들 때문에 봉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모임을 해야 했던 상황, 밤에 모임을 할 때는 눈에 띄기 쉬우니 연한 색깔옷은 입지 말자고 했던 일들은 생각하면 지금도 어처구가 없다.

그 당시 노동단체들의 탄압과 민통련 사무실 강제폐쇄 조치 등에 대응하여 힘있게 싸워내는 그 정신은 깊은 논의와 실천 과정에서 다시금 점검되었고, 이 과정 속에서 생긴 동지애와 결속은 어려움을 풀어내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민중들과 결합하는 삶으로 이어졌다.

살벌한 암흑의 시대, 살아 움직이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부러워해야 하는 죽음인 시대에 우리 나라 민주화운동에 초석이 되신 문익환 목사님을 비롯한 어르신들은 민중들의 삶 속에 행동하는 모범이셨습니다. 민중 일반에 부과된 사명을 실천적으로 수행하는 운동단체였던 민통련, 2005년 지금이야 말로 민통련 정신을 되살려 우리의 역사와 민중의 삶 속에 더욱 뜨겁게 녹아내리는 계기가 되는 20주년 기념이 되었으면 한다. 전북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시다 고인이 되신 '박복식' 동지, '최순이' 동지 편안히 영원한 안식을 누리소서!

전북 지역에서 활동했던 동지들 보고 싶습니다.

민통련 20주년 기념 행사에서 만나 동지애를 나누고 싶습니다.